


사랑사랑

제93호 (2002/9/24)

권향공작, 폭행, 사망,
자살조작, 은폐...
듣고 있는가



(110-522)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8-29, 3층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http://www.sarangbang.or.kr>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rights@chollian.net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을 밝혔습니다.

김경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지난 9월 7일 아트큐브에서 드디어 반딧불이 불을 밝혔습니다. 반딧불은 인권영화제의 후속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정기상영회의 이름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공지했듯이 '그 해 상영작 중에서 화제작(중요도나 인기도에서)을 선별해서 관객들에게 다시 한 번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반딧불의 취지입니다.

사랑방의 후원회원 모임인 '꿈꾸는 사람들'(이하 꿈사)이 반딧불을 밝히는 주체들입니다. 지난 5월 영화제 기간이 월드컵과 겹쳐 의도하지 않게 월드컵과 '홍행 라이벌'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첫 번 반딧불도 남북축구시합과 겹쳐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줄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흥행실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오후 3시와 6시 두 번 상영을 준비했는데 상영시작 한 시간 전부터 번호표를 줄 수 없냐는 열혈 관객들의 성화에 꿈사는 미처 준비하지 않은 번호표를 극장에서 서둘러 만들어야 했습니다. 결과 3시 상영은 관람석을 가득 메웠고, 6시에는 2/3 가량을 채운 만족할 만한 관객동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반딧불은 <전쟁사진작가>가 밝혀주었습니다. "전쟁사진 작가가 되어 모든 전쟁 현장을 기록해 세상에 알리는" 것이 삶의 목표인 제임스 나트웨이를 기록한 이 영화는 이번 인권영화제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나트웨이의 카메라에 소형 캡코더를 달아 셔터를 누르는 순간 순간을 포착한 형식적 특이함으로 인해 사진작가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상영장에는 유난히 카메라를 어깨에 두른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 독립영화인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작품은 또한 비참한 사람들을 사진에 담아야하는 사진작가의 윤리적 측면도 다루고 있어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논쟁의 화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반딧불의 목적은 관람기회의 확대에도 있지만 관객에게 사랑방의 활동을 좀 더 친숙하게 전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입니다. 9월 7일은 인권하루소식의 아홉 번째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반딧불에서는 이주영 편집장이 인권하루소식의 어제와 오늘을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편집장의 자상한 설명이 있었던 탓인지 반딧불을 마치고 난 후 인권하루소식의 취재기자를 자칭하는 자원활동가가 생겨 하루소식팀은 무척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첫 번 반딧불이 성황리에 끝났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영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영화제 측에서는 DVD를 제작했습니다. DVD는 화질도 뛰어날 뿐 아니라 상영에 필요한 인력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플레이어가 재생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결함이 있습니다. 사전에 시사를 해보았지만 영화 마지막 부

분에서 그만 DVD가 멈춰버려 테이프로 교체하는 '상영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 많은 시간이 지체되진 않았지만 첫 번 반딧불을 기억할 때 어김없이 등장할 에피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 속에서도 관객들은 술렁거림이 거의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런 광경에 감동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달 17일 저녁 7시 30분 <아티카의 유령들>, 11월 14일 7시 30분 <신의 아이들>, 12월 7일 3시/7시 <붉은 대기>의 일정으로 반딧불은 연말까지 일정을 잡아두었습니다.

다음달 반딧불에서 많은 분들을 뵙기 바랍니다.

다음 상영작 소개

아티카의 유령들

1971년 아티카 감옥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록펠러 정부는 유래없는 폭력을 사용하여 4일만에 반란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29명의 재소자와 교도관 10명이 목숨을 잃고 무려 1600여개 이상의 총알이 사용되었다. 이 영화는 당시 목격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감옥내 반란과 진압 과정 및 숨겨진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고 미국인의 가슴 깊숙히 숨겨져 있는 아픔을 드러낸다. 또한 이 일로 인해 생존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보여준다.

신의 아이들

'스모키 밸리 (smoky valley)'라 불리는 Payatas 지역은 필리핀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 중 하나이다. 온가족이 쓰레기를 주워다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곳 주민들에게는 매일 쓰레기를 한가득 싣고 오는 덤프트럭이 삶의 한 가닥 희망이다. 그러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산을 이루고 있던 쓰레기 더미가 휩쓸려 내려가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인근에서 집을 짓고 살던 주민들 수백명이 쓰레기 더미에 압사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사태 수습에 미온적이던 정부는 곧 재발을 막기 위해 이곳을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내리게 되고, 가족과 이웃을 잃은 슬픔도 잠시, 굶주림에 지친 주민들은 생계수단을 되찾기 위해 매립지에 대한 폐쇄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게 된다.

붉은 대기

붉은 대기는 60년대와 70년대 베트남, 볼리비아, 68년 5월, 프라하, 칠레 등 전세계에서 발발한 정치적 전쟁과 신 좌파의 운명을 서사적으로 그린 영화이다. 영화는 베트남 전쟁부터 체게바라의 죽음, 1968년 5월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된 파트 1과 프라하의 봄에서 프랑스 및 칠레에 이르는 이야기로 구성된 파트 2로 나누어져 있다.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오마이뉴스와의 악연(?)을 공개한다

인권하루소식 기자 '범용' 이

나의 하루는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와 함께 시작된다. 9시 30분 출근시간에 맞춰 사랑방에 나오건, 아침에 늦잠을 자다 지각을 하건, 새벽까지 편집한 후 점심 넘겨 출근하건, 혹은 밤을 새워가며 기사를 쓰다가 사무실 쇼파에서 그대로 쓰러지건, 나는 사랑방에서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고 곧바로 오마이뉴스 접속을 시도한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번 오마이뉴스를 접속한다.

내가 왜 그러는지 사랑방 식구들 외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 이유가 내가 인권하루소식 기자라는 사실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서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며, 조직적 차원에서 사랑방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될 '일급비밀'에 속한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오늘 사랑방 후원자들을 위해 특별히 공개한다. 나와 오마이뉴스와의 악연을! '고해성사' 하는 기분으로...

오마이뉴스 창간 후 얼마 되지 않아, 오마이뉴스 쪽에서 사랑방에 제안을 하나 했다고 한다.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올려 달라고. 사랑방은 이를 받아들여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때는 내가 아직 사랑방에 들어오기 전이라,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올리기로 결정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보다 많은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함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오마이뉴스의 어느 곳에 올려졌는지에 따라 기사에 대한 조회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오마이뉴스 메인화면은 탑, 서브, 그리고 잉걸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뉜다. 그리고 사회, 교육, 국제 등 각 섹션별로도 탑, 서브, 잉걸로 나뉘기 때문에, 오마이뉴스 기사는 6곳 중 어디엔가에 올려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메인화면 탑에 올려진 기사의 조회수가 최소 1만회를 넘고, 3~5만회 정도는 보통이다. 메인화면 서브에 올려진 기사의 조회수는 5백~5천회 정도로 다양하다. 섹션면 탑에 올려진 기사는 메인화면 서브에 올려진 것과 비슷한 조회수를 갖는다. 나머지 메인화면 잉걸, 섹션면 서브, 섹션면 잉걸에 올려진 기사들의 조회수는 5백회 미만이며, 대부분은 1백회 이하다.

주제의 참신함, 내용의 완성도 문제도 있겠지만, 기사가 오마이뉴스 어디에 올려졌는지에 따라서 조회수가 대폭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는 곧 기사의 중요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인권하루소식 기자인 나는 인권하루소식 기사가 오마이뉴스 어느 곳에 올려졌는지 '과도하게'

집착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편집장은 절대 그렇지 않음 을 분명히 한다.) 왜냐하면 인권하루소식에서 비중 있게 다룬 기사를 오마이뉴스는 어느 정도 중요하게 처리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사실 인권하루소식 기사의 반수 이상은 임결에서 머문다. 하지만 메인화면 서브에 올려지는 기사 또한 심심찮게 많다. 이 경우 시간에 지남에 따라 섹션면 탑과 서브로 조금씩 떨어지다 최종적으로는 임결로 내려온다. 섹션면 서브면에 올랐다가 임결로 내려오는 기사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조회수는 그리 높지 않다. 아주 드물게 메인화면 탑에 올려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한다.

그렇다면 지난 한달 오마이뉴스가 중요하게 처리한 인권하루소식 기사는 무엇이이었을까? 9월 13일자 기사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8월 30일자 만평 <이명박 시장님~ 이런 사진도 좀 찍어보시죠?!>, 9월 5일자 기사 <“사상전향 강요는 ‘인간파멸’ 공작이었다”였다. 이들 세 기사는 모두 메인화면 탑에 올려졌으며, 특히 기사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은 3만6천8백회가 넘는 조회수를 보였다.

메인화면 서브에 올려진 기사 중에는 8월 23일자 기사 <“녹화사업 자료, 대통령도 못 본다 고?”>의 조회수가 이례적으로 1만2천회를 넘었다. 9월 11일자 기사 <재계의 숫자놀이, 연간 총 휴일수>, 8월 24일자 기사 <삼성 노동탄압, 1인 시위까지 시비>가 4천회를 넘었고, 8월 30일자 기사 <“서울시장의 값싼 동정은 필요없다”>, 9월 18일자 기사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가 3천회를 웃돌았다. 8월 31일자 기사 <녹화사업 담당자 서의남씨 ‘공개수배’>도 2천7백회의 조회수를 보였다.

물론 기사에 대한 조회수는 읽는 독자가 확인할 수 없다. 기사를 올린 당사자만이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자신이 올린 기사의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방 후원자들이 오마이뉴스에서 인권하루소식을 보게 된다면, 조회수가 아니라 기사가 올려진 위치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

그런데 오마이뉴스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면서도 명백히 이윤을 추구하는 인터넷 신문이기 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이 제공하는 기사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메인화면 탑에 올려지면 1만원, 메인화면 서브나 섹션면 탑에 올려지면 5천원, 그리고 섹션면 서브나 임결기사에 머물면 1천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임결에도 올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이른바 생나무 기사는 원고료를 지급받지 못한다.

여기에 덧붙여 읽는 독자가 각 기사의 하단에 위치한 광고배너를 클릭하면 50원의 광고료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 광고료 수입도 만만치 않은데, 기사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에는 5천원의 광고료가 붙었다. 1개의 IP에서 그 기사의 광고배너를 클릭한 셈으로, 이는 임결 기사 5개에 맞먹는 원고료다.

사실 오마이뉴스에 접속한 후 기사당 조회수를 보는 것도 재밌지만, 기사의 원고료와 광고료가 얼마인지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사랑방에서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이 나 이외에 한 명 더 있는데(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사랑방 식구들은 이러한 나의 태도가 ‘돈 보기를 돌 같이 하는 사랑방 식구들의 체통’을 훼손한다고 농담반, 진담반 조로 이야기하곤 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는, 모든 기사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래도 기사의 진보성보다는 흥행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권하루소식에서 심혈을 기울인 기사가 종종 외면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 역도 존재한다. 지난달 최대의 조회수를 보인 기사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가 대표적인 예다.

사실 그 기사는 인권하루소식의 입장에서 보면 잘 쓴 기사가 아니다. 양심에 따라 병역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기자회견을 건조하게 다루었을 뿐이지, 당시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정국과의 연관성을 치밀하게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마이뉴스는 바로 그 '병역비리 정국과의 연관성 때문에, (흥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인지) 그 기사를 메인화면 탑에 올린 듯했다.

매체의 지향과 속성상 인권하루소식은 분명히 오마이뉴스와 단순 비교될 수 없다. 하지만 심혈을 기울여 쓴 기사가 오마이뉴스에 외면당할 때는 다소 속상한 느낌이 드는 것을 어찌라?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오마이뉴스가 중요하게 다루고 그에 따라 원고료·광고료도 많이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오마이뉴스에 연연하는 것이 비록 사랑방 식구들의 체통에 맞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오마이뉴스 접속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조회수를 확인하고, 원고료·광고료가 많아지는 것을 즐겨워한다. 이것이 바로 오마이뉴스와 나의 악연인 것이다.

그러지 않아야 함을 알면서도 행동을 했을 때 고해성사를 하지 않던가? 그래서 이 글은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쓰게 됐다. 사랑방 후원자들이 혹시 오마이뉴스에서 인권하루소식을 보게 된다면, 기사 아래 광고배너를 클릭 해 주길 바라면서...

꼼따기사툰

이 동수

*꼼따란 '꼼꼼히 따지며 살자'의 준말이에요^^**



사/업/보/고

(2002년 8월 넷째 주 - 9월 셋째 주)

인권그욕실

의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엔아동권회의 준비

오는 10월 9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아동 권리위원회 사전실무회의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차 민간보고서 사업을 담당했던 류은숙 상임활동가가 이번 회의에도 참가합니다. 류은숙 씨는 10월 7일 출국하여 11일에 귀국합니다.

2. 인권교육길잡이 개정증보판

『인권교육길잡이』 개정증보판을 위한 기획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과 읽기 자료 보완에 들어갑니다. 이 일에 관심 가진 분들을 환영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서 모이는 '인권교육연구모임'은 열려 있습니다.

3.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인권하루소식〉에 기획으로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인권교육을 연구하거나 실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있으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청년인권워크숍 기획

지난 7월에 방콕에서 열렸던 '아시아 태평양 청년 네트워크-인권교육워크숍' 후속작업으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워크숍을 열 계획입니다. 2003년 1월에 1박 2일동안 (18-19일 예정) 18세에서 25세까지의 청년 남녀를 대상으로 열게 되는 청년인권워크숍

인권정보자료실

1. 성공회대·이화여대 학생 7명, 2002년 2학기 사회봉사 시작

성공회대 지은영 씨, 이화여대 백지현 씨 등 총 7명이 9월 3째 주부터 2002년 2학기 사회봉사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11월까지 26~30시간 사회봉사를 하게 되며, 영문 참고문헌, 국문 신착자료 입력과 국정감사 자료집 제작 등에 참여합니다.

2. 200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모니터 시작

200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아동권리협약 제2차 민간단체 보고서, 감옥 모니터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사랑방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인권정책, 인권지표, 인권현황 등을 모니터해 왔습니다. 모니터한 결과는 인권하루소식에 기사화 되고,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들은 상임위별로 재가공되어 자료집으로 묶여 집니다.

3.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 기사입력 마무리, 주제어 입력 중

2002년, 2001년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

입력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고, 현재 입력 자원활동가들은 2000년 인권하루소식 입력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애초 2002년, 2001년 인권하루소식만 먼저 데이터베이스화하려 했는데, 입력 자원활동가 여러분의 의욕적인 활동으로 2000년 인권하루소식까지 DB화 계획에 추가되었습니다.

4. 인권데이터베이스에 '국문 참고문헌' 등록 시작

인권정보자료실은 인권데이터베이스에 영문 아시아 자료 195개 등록을 완료했고, 현재는 국문 참고문헌 자료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국문 참고문헌에는 <민주사회를위한 변론>, <민주법학>,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인권하루소식 합본호> 등 주요 참고문헌들이 장간호부터 최근호까지 등록되어 있어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사업반

1. 공소시효 배제입법 국회논의 착수

국회가 드디어 반인도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올초부터 꾸준히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해 온 한편, 지난 9월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부적용입법 건의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됨으로써 국회에서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로 인해 본격적인 논의는 10월 이후로 미뤄졌지만,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2. 하월곡동 인권실태 조사작업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모임은 올 하반기부

터 서울시 하월곡동 일대의 인권실태 조사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월곡동은 신림동 난곡 일대와 더불어 서울시내에 남은 최후의 달동네 지역입니다. 지역 인권문제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회권운동의 전망을 찾아보는 것이 이번 조사활동의 목적입니다.

자원활동가모임은 인권실태조사작업에 앞서 사회권문제 전반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중이며, 이르면 10월부터 본격적인 현장조사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 사회권 규약 해설서 작업

1차 연구작업의 결과물(△사회권규약이란 무엇인가 △사회권위원회 소개 △사회권규약의 선택의정서 채택 논의 △국가의 이행 의무 △평등권 △사회권규약의 국내적 적용)을 도서출판 사람생각에 넘기고, 2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연구작업은 사회권규약 조항별 접근에서 벗어나, 개별 인권에 기초한 접근에 따릅니다. 2차 연구작업에서 다뤄질 인권은 △식량권 △노동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교육권 △문화·과학권입니다. 이번 연구작업은 개별 사회권이 부과하는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존중·보호·실현의 의무와 더불어, '최소핵심 의무'와 '차별금지의 의무'의 관점에서 국가의 의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할 권리',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의 초고를 완성하고, 계속해서 건강권, 노동조합결성권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소/식

(2002년 8월 넷째 주 - 9월 셋째 주)

1. 장애인이동권연대 투쟁지지 동조단식
 지난 8월 12일부터 39일간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국가인권위에서 발산역 사고 책임규명과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인권단체들도 그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동조단식을 했습니다. 사랑방 활동가들은 이창조씨를 시작으로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서로 돌아가며 동조단식을 하고 시청 지하철역에서의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39일간의 단식농성을 한 박경석 이동권연대 대표의 빠른 건강회복을 기원합니다.

2. 자원활동가 이공은나씨 영국으로
 7월부터 상근 자원활동가로서 인권하루소식 기자, 어린이인권캠프 교사 등으로 3개월여를 함께 했던 이공은나씨가 자원활동을 마치고, 영국 예섹스 대학에서 인권을 공부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사랑방 활동가들은 필기도구를 가득 채운 필통을 선물하며 작별을 아쉬워했습니다.

3. 국제사회권 네트워크 준비회의 참가
 사회권 운동의 이념과 실천 모델 창출,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에서 사회권의 옹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적이고 지속적인 연대체계를 모색하는 것은 사랑방의 주요 임무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사회권 관련 단체들의 국제연대를 위한 조직인 ESCR-Net의 출범 준비를 위한 아시아 준비회의가 8월 말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구)사회권위원회소속 자원활동가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 필진으

로 참여했고, 사회권 해설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허혜영씨가 이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ESCR-Net은 오는 11월 출범 예정이며, 사회권의 법적실현과 IMF등의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이 사회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등을 모색할 것입니다.

4. 그림으로 풍요로워진 사랑방

지난 5월 열렸던 영국의 인권운동가 단 존스씨의 그림 전시회를 기억하십니까? 그림을 돌려보낼 길을 수소문하다가(물론 돈을 들이면 되지만) 9월이 되어서야 시민단체활동가들의 해외연수 길에 그림운반을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그림이 안전하게 존스 씨에게 돌아갔고, 사랑방에는 존스씨가 기증한 작품들이 남았습니다. 그림으로 훨씬 풍요로운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5. 인권하루소식 창간 9주년

지난 9월 7일로 <인권하루소식>이 창간 9주년을 맞았습니다. 창간 3주년 행사로 '인권영화제'가 기획됐던 인연인지, 이날은 인권영화정기상영회 '반딧불'이 처음 열린 날이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잘 만들기를 바라는 기대가 커가는 속에서 <인권하루소식>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할 뿐입니다.

2002년 8월 회계 보고

(2002년 8월 17일 - 2002년 9월 16일)

이월금 : 3,960,463 원			
수 입		지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익 2,684,050원 -하루소식 1,873,6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독료 1,675,850 기사배급 197,800 -간행물 판매 10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깨어나일어나 3권 인권교육길잡이 1권 인권은교문앞에서... 1권 불심검문자료집 2권 국가보안법보고서1998 1권 국가보안법보고서2000 1권 너를위한촛불이되어 1권 양심적병역거부 1권 아이들의인권 세계의약속 1권 아시아의인권 교육 1권 -감옥법령자료집 64,000원 -자료제공 86,900원 -합본호 160,000원 -강연료 350,000원 -<희망>판매 44,500원 ■ 후원금 4,826,48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후원 4,826,480 ■ 사랑방기여금 267,100원 ■ 은행이자 4,102원 ■ 기타 26,89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890,29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소식 우편발송 152,440원 -자료실 26,600원 -감옥인권팀 116,850원 -기획사업팀 269,760원 -사람사랑 제작발송 120,150원 -희망발송비 4,790원 -연대사업비 50,000원 -출장비 및 취재비 149,700원 ■ 활동비 3,000,000원 ■ 사무실유지비 1,847,640원 ■ 통신비 863,400원 ■ 사무국 식비 354,140원 ■ 생활비 64,760원 ■ 합본호 제작 및 발송 1,365,920원 ■ 경조사비 50,000원 ■ 기타 36,550원 	
총수입: 7,808,622 원		총지출: 8,472,700 원	
잔액: 3,296,385 원			

<2002년 8월 재정 세부내역>

- 서준식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옥중서간집의 판매수익이 기여금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지난달 특별후원금 중 366,000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기여금은 모두 633,100원입니다.
- 임석현·박선옥님께서 매달 쌀과 김치를 가져 다 주십니다. 이번 달엔 불교인권위원회에서도 쌀을 주셨습니다.
- 매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에 참가단체회비로 연대사업비가 지출됩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호 제작과 발송으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8월 후원금 납부 감사합니다> 캐나다 슌, 9/17일(지로는 9/13)까지

